

“3金시대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 주시길”

오는 11월 14일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돌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37년이 지나 이제는 역사적 인물로 기억될 세월이 지났건만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여러 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여 박정희와 김종필, PP와 JP 두 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윤정 선생은 지난해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김종필 회고록 “笑而不答”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할 것도, 강렬한 점도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흔에 이르러 회상해 보니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장면 말이다. 육사를 8기로 졸업한 1949년 6월, 나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장교로서 첫발을 디뎠다. 동기생 일곱이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치됐다. 발령식 때 정보국장이던 백선엽 대령이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가 신고 드릴 분이 한 분 더 있다. 작전실로 가서 인사 드려라.” 바로 옆 ‘작전정보실’이란 팻말이 붙은 작은 방으로 가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에 전투정보과에 배속된 신임 소위들입니다. 신고를 받으십시오.” 작전정보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내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옷 탓이었을까. 참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새카만 첫인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계면쩍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나 박정희요. 근데 난 그런 신고 받을 사람이 못 돼. 거기들 앉게.” 악수를 나누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박 실장은 “내가 사고를 당해서 군복을 벗었다”고 간단히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육사를 우수하게 졸업한 장교들이라고 들었다. 환영한다”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군복을 벗고 정보국의 문관文官으로 일하던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러한 첫 만남 이후 박정희와 김종필 이 두 분을 굳게 연결시킨 인연은 역시 조카딸 박영옥



김진봉
(재)운정재단 이사장

여사와의 결혼입니다. 앞의 예의 회고록 “笑而不答”을 인용하면 『김종필 전 총리가 아내 박영옥 여사를 처음 만난 것은 1950년 6·25가 일어나기 전 서울 용산에서 이다. 당시 용산에는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들이 썼던 숙소가 30여 채 있었는데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작전정보실장)이던 박정희는 그곳을 관사로 썼다. 그는 점심 때 JP에게 “국수나 먹으러 가자”며 숙소로 데려갔다. 그곳엔 조카딸 박영옥이 와 있었다.

박정희는 대뜸 “저거 조카딸이야. 내가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고 있지”라고 말했다. JP는 이날 박영옥과 말 한마디 못 나눴지만,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다 알려진 위의 두 일화를 굳이 화두로 소개하는 것은 박정희와 김종필 이 두 분의 인연이야말로 제3자가 인위적으로 펴려야 펴 수 없는 질긴 인연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때마침 인터넷에 고 박대통령이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게 약관 40세 생일을 맞이한 축하서신이 경매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 세월의 무상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정아카이브로 소개되었던 외교활동사는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에 이어 이번 호에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를 끝으로 5번의 연재를 마칩니다. 정치를 제하면 아마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외교관으로 기록되고 명성을 더 하였을 법한 내용들이 그동안 조금이나마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운정의 발자취를 아카이브를 통해 계속 발굴하고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동아일보 “아시아의 90대 老 정객들 살아있네”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김종필 전 총리께서 “정치 9단”으로서 훈수를 하며 ‘3김 시대’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盧處

2017년 9월 30일 김진봉